

LG정유, 해외채권 3억달러 발행

10년만기 미국국채 금리+1.38% ... 정제설비 개선 및 에너지 사업 투자

LG-Caltex정유가 최근 미국에서 3억달러의 10년 만기 양키본드(Yankee Bond)를 발행했다고 8월18일 밝혔다.

LG정유의 양키본드 발행은 2001년 이후 3년만으로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시티그룹, 도이치방크가 공동 주관사이며 10년 만기 미국국채 금리에 1.38%의 가산금리를 더해 쿠폰은 5.50%로 결정됐다.

LG정유는 해외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석유 정제설비 고도화와 LNG 사업, 캄보디아 유전 개발 등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4/08/19>